

광주·무안공항 모두 살리자

신규노선 개발 나서라

③신생 무안공항, 정부 육성책이 먼저

광주공항 이전보단 새 수요 창출 급선무 초기적자 대체할 항공사 인센티브 확대도

오는 11월 8일 '환황해권 거점공항'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문을 여는 무안국제공항의 위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무안공항의 연간 안개일수는 17일로 인천(47일), 청주공항(78일) 등에 비해 천체의 입지여건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항공 수요 앞에서는 빛이 바래고 만다.

무안공항에서는 개항 바로 다음 날인 11월 9일부터 상하이와 선양, 베이징, 타이완, 창사, 후쿠오카(예정) 등 6개 국제노선 주 42편이 운항될 예정이다. 국내선은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1일 8편이 운항된다. 그러나 국제선은 거점공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광주공항에서 운항 중인 노선을 그대로 가져올 예정이어서 광주지역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개항 초기 무안공항 가동률은 20%선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총 면적 256만7천690㎡에 항공기

9대가 동시에 머무를 수 있는 9만 962㎡의 계류장, 길이 2천800m 너비 45m의 활주로를 갖춰 연간 14만회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고 519만 여명이 이용할 수 있지만 확보된 노선이 너무 빈약하다. 또 자금 상황이 어렵게 풀가동 될 지 짐작하기도 힘들다.

무안공항이 개항 초기 활기를 찾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모아진다. 정부는 무안공항 건설이 끝나자 공항 정상운영의 필수 요건인 항공 수요 창출에는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국제선 이전과 중국 대륙으로 향하는 타이완 항공의 무안 경유 등을 결정했을 뿐 신규 국제노선 발굴에는 한 발 물러서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불만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무안공항 국제선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3일 일본 사가

현에서 열린 '한·일 해협연안 시도 현 지사 교류회의'에 참석, 해당지역 지사들과 무안공항과 일본 규슈지역간 직항로 개설에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부터 일본(도쿄·오사카), 중국(칭다오·홍콩·항저우·광저우), 필리핀(마닐라),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팔라방푸르) 노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외교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무안공항 개항 후 항공사와 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됐지만 관련업계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무안공항을 조기에 활성화하려면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대형 개발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해 시너지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F1(포틀러 원) 국제자동차대회, 무안기업도시, 나주혁신도시 등 급격한 지역발전 현안과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활기를 띠어야 무안공항도 비로소 환황해권 거점공항의 위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끝>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국화밭에서...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2007 대한민국 국화대전'을 앞두고 행사장인 함평 자연생태공원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손을 흔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함평국화대전은 올해가 4번째로, 다음달 18일까지 24일간 계속된다. /함평=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선주자 연속 인터뷰-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인터뷰 4·5면

“범여 원샷 대통합 꼭 이루겠다”

<후보 단일화+정당 통합>

“우주항공청, 전남에 설립”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샷 대통합(후보단일화+정당 통합)을 포함, “범여권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남북 평화협력시대의 한반도 운영’이며, ‘개성공단의 정동영’이 ‘청계천의 이명박’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광주·전남을 우주과학 기지 핵심 메카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전남에 신설·설립하고 광주·전남에 우주산업 관련 부품소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수정, 오송~광주 구간을 임기 안(2012년 말)에 완공하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인 광주를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뤄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샷 대통합을 포함, 범여권의 모든 대통합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대통합을 위해 우선,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가치와 비전, 정책을 만들어 가는 가치연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며 “즉 가치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가치를 중심으로 뭉치고, 합리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을 따르고 승복하는 방향으로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대선 정책은 정권 자본주의, 특권 경제론, 승자독식론, 대결주의 정책 등으로 정의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정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꿈을 확실히 대변하고 실현할 후보라는 점에서 대선 승리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시장 “무안공항 개항 연기해 달라”

박광대 광주시장이 오는 11월 8일로 예정된 무안국제공항 개항식을 내년중으로 연기해줄 것을 23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이음섭 건설교통부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국제선 이전에 대한 광주지역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면서 “국제선 문제 등 무안공항 개항 준비가 될

된 만큼 개항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해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무안공항을 개항하면서 아무런 준비와 노력없이 광주의 국제선을 가져가기 보다는 무안~오사카, 무안~중국, 무안~대만 등 손쉽게 개척할 수 있는 국제 노선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어 광주와 무안을 30

분 이내에 연결할 수 있는 SOC(사회간접자본)를 준비한 뒤, 국제선 이전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중기자 chae@



“전군표 청장에 6000만원 줬다”

정상근 前 부산국제청장 진술... 쏠청장 “사실 무근”

정상근 전 부산지방국제청장이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의 대가로 받은 1억 원 중 6천만원을 전군표 국제청장에

게 전달했다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23일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부산지검은

정상근 전 청장을 상대로 1억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26일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국제청장실

집무실에서 전 국제청장을 수차례 만나 6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청은 이날 한 인터넷매체의 보도가 나온 뒤 해명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전군표 국제청장은 해명자료에서 “거액의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